



## 연중 제2주일(1월 15일) 하느님의 어린양 (요한 1,29-34)



### 세상 안에 머무심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요한 1,32)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심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1. 19.)

###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 가운데 머무소서.  
- 주님, 저희가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9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34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요한 1,31)

나는 주님께서 알려지시게 하려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요한 1,34)

나는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증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고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느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는 하루를 지내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무엇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도 즐겨 보고 듣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곤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에 자주 참례하여 말씀을 듣고, 거룩한 신비를 많이 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하느님에 관한 증언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자주 듣고 봄으로써 우리도 요한처럼 거룩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